

## KIA 2위 '虎시탐탐'

두 경기 차 LG와 맞대결 순위 바뀔수도 ... 김상현 복귀 방망이 '든든'

###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 주말엔 SK 사냥 나서

'창과 방패'를 더한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6월을 예고하고 있다.  
 KIA는 지난주 넥센과 롯데를 상대로 5승1패를 수확하며 승률을 0.532까지 끌어올렸다. 치열한 자리 싸움으로 여전히 4위에 머물고 있지만 2위 LG와 3위 삼성은 2게임차 내로 가시권에 있다.  
 원정 6연전을 앞둔 KIA의 주중 상대는 LG 그리고 주말에는 문학으로 건너가 SK와 맞붙는다.  
 리즈·주키치 등 새로운 용병 선발진과 무선운 신인 임찬규를 더해 마운드를 꾸린 LG는 올 시즌 2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KIA와는 두 경기 차, 주중 맞대결에 따라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올 시즌 전적에서는 4승2패로 KIA가 앞서있다. 주말에는 1위 팀 SK와의 경기가 펼쳐진다. SK가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마운드 운영이 예년만큼 매끄럽지는 않다. 올 시즌 전적에서 KIA가 2승3패로 뒤처졌지만 '연장 끝내기 삼중살'이라는 진기록으로 SK에 빼어난 패배를 안겨 주기도 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두 팀과의 대결을 앞둔 KIA는 투·타에 전력을 더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거포 김상현과 좌완 트레비스가 각각 LG와 SK 사냥의 첨병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상현은 지난 20일 한화와의 군산경기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4일 넥센전 선발로 나왔던 트레비스는 어깨 통증으로 자리를 비웠다.  
 2군 경기에 출전해 방망이를 가다듬었던 김상현은 LG와의 경기 때부터 투입이 가능하다. 트레비스도 주말 SK전을 통해 마운드에 복귀할 예정이다.  
 31일 KIA와 LG는 좌완 양현종과 강승구 투수리조트를 선발로 내세웠다. 양현종은 LG전에서 1승1패를 기록했고, 리즈는 KIA전 두 경기에 나와 2패를 기록했다.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3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43	28	15	0	0.651	-	1승
2 LG	47	27	20	0	0.574	3.0	1패
3 삼성	46	24	20	2	0.545	4.5	1패
4 KIA	47	25	22	0	0.532	5.0	1승
5 롯데	45	20	22	3	0.476	7.5	1패
6 두산	45	19	24	2	0.442	9.0	1승
7 한화	48	19	28	1	0.404	11.0	1패
8 넥센	45	17	28	0	0.378	12.0	1승

마운드 대결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양팀의 화력싸움이다.  
 올 시즌 LG와 KIA는 화끈한 타력으로 팀 타율 1·2위를 달리고 있다. 홈런도 LG가 40개를 쏘아올리며 1위에 올라 있고, KIA가 34개의 홈런포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1 시즌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두 팀의 방망이가 어떤 성적표를 만들어낼지 야구팬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17) 1989년 해태 V5

한국프로야구 8년차를 맞이한 1989년에는 전·후기로 분리 운영돼 오던 페넨트레이스가 단일 시즌제로 전환되었다. 경기수가 120경기로 늘어 난 해이기도 하다.  
 첫 시합대에 오른 단일 시즌제는 페넨트레이스 3-4위 팀이 3전2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전, 2-3위팀이 5전3선승제의 플레이오프전을 거쳐 1위팀이 플레이오프전 승자와 7전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방식이었다.  
 페넨트레이스 3위 태평양 돌핀스와 4위 삼성 라이온즈 간의 대결로 펼쳐진 준플레이오프전에서는 태평양이 2승 1패를 거두며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페넨트레이스 2위 해태 타이거즈와 태평양 돌핀스 간에 펼쳐진 플레이오프 1차전은 해태가 신동수와 선동열이 4이닝씩을 책임진 무자책 계투와 이순철·김성한·한대화 3안타와 김중모의 3타점의 수훈으로 10-1 대승을 거두었다.

### 단일시즌제로 바뀌도 우승은 무조건 '해태'

해태는 2차전서도 조계현의 구원 역투와 김성한의 홈런 한 방으로 1-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3차전서는 선동열이 2타자 중 1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위력적인 구원 역투를 펼쳤고, 박철우의 2안타, 장재근의 2타점으로 5-1 승을 거두고 해태가 3전 전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페넨트레이스 1위 빙그레 이글스와 해태 타이거즈 간에 펼쳐진 한국시리즈 1차전은 '광통' 이강돈이 선동열로부터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날려 기선을 제압하며 빙그레에 기울었다. '컨트롤 마스터' 이상군의 호투까지 더해져 빙그레는 4-0 완봉승을 거두었다.  
 2차전은 신동수와 이강철의 무실점 계투속에 박철우·백인호·장재근이 3안타씩을 기록한다 빙그레가 실책으로 자멸한 틈을 타 해태가 6-4 역전승을 거두었다. 3차전은 해태가 '꽃패지' 문희수와 선동열의 합작 완봉역투와 박철우의 2안타 수훈으로 2-0으로 승리했다.  
 문희수는 한국시리즈에서 3년연속 3차전 승리투수가 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차전 역시 해태가 김정수·이강철의 효과적인 계투와 이순철·한대화·김성한(연타석)의 홈런 4방으로 6-2로 압승을 거두었다. 해태는 시리즈 고별전이 된 5차전에서 선동열을 조기 투입해 탈삼진 10개의 위력투로 빙그레의 활화산 같은 타력을 잠재우고 5-1로 승리했다. 해태는 투타의 조화를 이룬 불꽃을 일으킨 빙그레의 거친 날개를 꺾고 한국시리즈 전적 4승1패로 4연승 우승이자 V5의 대우업을 달성했다.  
 해태의 귀한 좌타자로 페넨트레이스 타격 3위를 차지한 '클러치 히터' 박철우는 18타수 8안타(0.444)의 팽타로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안았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연구회장)

## 이범호 홈런 1개 당 20만원 '사랑 나눔' 동참



KIA의 새로운 해결사 이범호가 타격 만큼 시원한 이웃 사랑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해에 이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타이거즈 러브 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타이거즈 러브 펀드'는 KIA 선수들의 경기 기록에 따라 선수, 구단 프런트,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적립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  
 지난 28일엔 적립기금 일부인 1820만원이 광주·전남·북지역 초·중·고 야구 유망주 54명에게 전달됐다.  
 올 시즌에는 주장 김상훈을 비롯해 선재웅·유동훈·윤석민·곽정철·손영민·박정태(이상 투수), 최희섭·김상현·이범호·김선빈·안치홍·이현근(이상 내야수), 이용규(외야수) 등 14명의 선수가 기아차 임직원 3500여명이 나눔 활동에 참여한다.  
 신임 호랑이 이범호도 홈런 1개당 20만원 적립을 약속하고 사랑 나눔 대열에 합류했다.  
 '타이거즈 러브펀드' 14명 참여 지역 초·중·고 야구유망주 지원  
 지난 27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승리에 앞장선 이범호는 올 시즌 10개의 홈런포로 200만원을 적립해줬다.  
 이범호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다할 보답을 하지 못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립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나도 그렇고 많은 선수가 힘을 함께 야구를 했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환경의 꿈나무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재웅과 윤석민은 1승당 10만원, 유동훈은 1승·1세이브·1홀드 당 각각 3만원·3만원·2만원, 박정태는 5만원·3만원·2만원을 적립한다.  
 최희섭과 김상현은 홈런 1개당 5만원씩을 약속했고 이용규는 안타 및 도루 1개당 2만원, 김선빈은 도루 1개당 3만원, 김상훈·이현근은 안타 1개당 각각 3만원·2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단과 함께 꿈나무 후원 결연활동(1안타·1도루당 1만원 적립)을 하고 있는 안치홍도 안타 1개당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시민들에 머리숙여 사과"

승부조작 입장 발표 ...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 "재발 방지"

정몽규(49)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30일 승부 조작 파문과 관련해 축구팬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총재는 이날 신문에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총재는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건은 30년간 지속해 온 K리그는 물론 한국축구의 근간을 흔들

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서 "프로연맹은 K리그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 한국프로축구의 명예를 걸고 앞장서서 K리그 내부의 승부 조작 시도와 불법 배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및 대한축구협회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방

법을 동원해서 K리그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정 회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 사건 연루로 홍역을 치른 광주 FC도 30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광주는 사과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사랑 속에 K리그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구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대해 말할 수 없는 깊은 유감과 통회의 뜻을 전하며 팬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AS모나코 2부리그 강등 박주영 12골로 시즌 마감

박주영이 뛰는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가 2부 리그로 강등됐다.  
 모나코는 30일 오전(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리그) 최종전에서 리옹에 0-2로 졌다.  
 올 시즌 9승17무12패로 승점 37점에 그친 모나코는 최종 18위가 돼 2부리그로 떨어지게 됐다.  
 박주영은 선발 출전했지만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33분 다니엘 니콜라에와 교체되며 12골을 올 시즌을 마감했다.  
 /연필뉴스

## 박찬호 일본 프로야구 2군 추락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악의 투수로 시즌 5패를 떠안은 '코리아 특급' 박찬호(38·오릭스 버펄로스)가 다시 2군으로 추락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인 닛칸스포츠는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오카다 아키노부 오릭스 감독이 박찬호에게 2군행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올해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한 박찬호는 일곱 차례 경기에 나서 1승5패와 평균자책점 4.29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연필뉴스

광주/전남 Gopher를 위한 새로운 제안①

**"광주/전남 주요골프장 월3회(주중2회/주말1회)무료라운딩"**

**"100%보증금+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주식회사 리즈골프

#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 제주 골프 투어시 제주골프클럽 15박 회원대우
- ▶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구분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적용대상	이용횟수	골프서비스	지원기준	숙박서비스
프라이	3,8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년 22회 (년 27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기 명-1인 무기명-1인	년 34회 (년 39회)	주중24회 / 주말10회 월4회(주중3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플레 티움	6,4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년 22회 (년 27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기 명-1인 무기명-1인	년 34회 (년 39회)	주중24회 / 주말10회 월4회(주중3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광주/전남 법인Gopher를 위한 새로운 제안②

**프라이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회원 그린피 전액무료"**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부킹보증 월횟수	회원자격
프라이 호남 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주중8회+주말4회/월 (년 108회)	본인 + 무기명 3

\* 그린피 면제는 전남·북 / 제주에 한함

▶ 모집인원 : 선착순 15명(2011년 5월 한)

▶ 계좌번호 :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 예금주 :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